

good for you.

장단

OT Feminism cafe feminism cafe. program

수화통역사. 작당회.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2월 17일-으악! OT전날이다...)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오리엔테이션 상황 보고
- 3) 각 국별 보고

9시까지

2월만 제1방.

2. 논의 사항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 총학생회 안에 대한 발제
- 총여학생회 위상에 관한 발제

- 논의
 - 2) 자치단체모임에 관하여 → 2주하반기
 - 그동안의 자치단체 모임 운영

3월 자치단체 테이블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제안서를 통해)

- 3) 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총여실의 오락실화.. 글세 좀 규칙이
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4) 세미나 합숙? (엔티?) 일정을 잡아봅시다.

3. 다음주에는... / 자치단체 table / 총여학생회 사업회

- 1) 일단 3,4월 정도 사업 계획과
- 2) 당장 총여학생회 사업 관련 선전 문제정도를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23일 졸업식. 세미나. 간담회.

연세문화 → 책임자. (자조학숙)

이과대 여성수업 → 4면.

총여학생회 소개.
[실용적 정보 (여학생 휴게실, 2면
총여학생회 소개)]

'98년도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일정에 대한 계획안

학생회비 배분에 참여하는 기구로는 총학생회, 10개 단대학생회, 9개 특별기구가 있습니다. 의치간호대는 학생회비의 60%만이 총학생회 학생회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배분받지 않습니다. 학생회비 예산 배분은 단대학생회, 특별기구, 총학생회 및 특별공동예산 으로 나누어져 배분되게 됩니다.

학생회비 배분을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고 이전 자료도 부실한 상태에서 전년도에 각 단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배분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올해 예산배분의 주 기준은 작년도 예산배분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 배분의 구성 부분들 중 특별기구와 특별공동예산은 중운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대학생회비의 예산 분배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객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총무단회의를 통하여 중운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일정을 제안합니다.

● 2월 셋째주

☞ 예산배분안 심의에 관한 일정 공유

☞ 특별기구의 심의 및 예산심의를 위한 방법 공유

특별기구심의안 제출 논의.

● 2월 넷째주

☞ 특별기구에 대한 심의 및 예산 결정

● 3월 첫째주

☞ 특별공동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 및 예산 결정

☞ 단대 학생회비 배분을 위해 총무단 회의 소집

한주씩 늦춰짐.

● 3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

☞ 총무단 회의 및 단과대학 학생회비 배분안 확정

● 3월 둘째주

☞ 총무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심의 및 확정

☞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

학생회비의 총액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단위의 예산안과 상관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파격적인 예산의 가감은 사실상 힘들고 그렇게 해서도 곤란합니다.

전년도 단대학생회비 24.83%, 특별기구 17.87%, 총학생회비 57.30%에서 $\pm 0.5\%$ 이내의 변동정도만을 인정해야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거리 안에서 그 내부구성단위들 간의 부분적 변동사항을 심의해야 큰 폭의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 중운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들 속에서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97-1학기 학생회비 정산 내역

I. 총수입 178,052,000원

문과대학	2,808명	28,080,000원
상경대학	3,094명	30,940,000원
이과대학	1,693명	16,930,000원
공과대학	4,776명	47,760,000원
신과대학	249명	2,490,000원
사회과학대학	1,470명	14,700,000원
법과대학	941명	9,410,000원
음악대학	592명	5,920,000원
생활과학대학	698명	6,980,000원
교육과학대학	592명	5,920,000원
의과대학	690명(60%)	4,140,000원
치과대학	338명(60%)	2,028,000원
간호대학	459명(60%)	2,754,000원
총 계		178,052,000원

II. 총지출 178,052,000원

A. 단과대 배정 총액 ; 44,121,951원

문과대학	6,514,071원
상경대학	5,895,806원
이과대학	5,148,239원
공과대학	7,147,501원
신과대학	2,710,057원
사회과학대학	4,055,403원
법과대학	3,737,731원
음악대학	2,930,494원
생활과학대학	3,224,546원
교육과학대학	2,758,103원

B. 9개 기구 배정액 ; 31,741,403원

총학생회	6,408,512원
등아리연합회	11,541,068원
언론협의회	2,273,352원
홍원단	2,448,167원
소나기	2,448,167원
예비역복학생협의회	1,387,346원
풍물패협의회	2,098,411원
홍일연세TV	1,749,034원
연극패협의회	1,387,346원

C. 총학생회 배정액 ; 102,188,646원

'97-2학기 학생회비 정산 내역

I. 총수입 163,488,000원

문과대학	2566명	25,660,000원
상경대학	2860명	28,600,000원
이과대학	1551명	15,510,000원
공과대학	4377명	43,770,000원
신과대학	232명	2,320,000원
사회과학대학	1288명	12,880,000원
법과대학	786명	7,860,000원
음악대학	578명	5,780,000원
생활과학대학	673명	6,730,000원
교육과학대학	566명	5,660,000원
의과대학	681명(60%)	4,086,000원
치과대학	332명(60%)	1,992,000원
간호대학	440명(60%)	2,640,000원
총 계	16,930명	163,488,000원

II. 총지출 163,488,000원

A. 단과대 배정 총액 ; 40,674,569원

문과대학	5,988,938 원
상경대학	5,436,509 원
이과대학	4,751,054 원
공과대학	6,586,936 원
신과대학	2,499,253 원
사회과학대학	3,740,513 원
법과대학	3,447,791 원
음악대학	2,704,328 원
생활과학대학	2,976,242 원
교육과학대학	2,543,005 원

B. 9개 기구 배정액 ; 29,296,866원

총여학생회	5,914,697원
등아리연합회	10,652,359원
언론협의회	2,098,294원
응원단	2,259,647원
소나기	2,259,647원
예비역복학생협의회	1,280,515원
풍물패협의회	1,936,824원
연세TV	1,614,368원
연극패협의회	1,280,515원

C. 총학생회 배정액 ; 93,516,565원

₩178,052,000

1학기

₩163,488,000

2학기

문	₩6,514,071	3.66%		₩5,988,938	3.66%	
상	₩5,895,806	3.31%		₩5,436,509	3.33%	
이	₩5,148,239	2.89%		₩4,751,054	2.91%	
공	₩7,147,501	4.01%		₩6,586,936	4.03%	
신	₩2,710,057	1.52%		₩2,499,253	1.53%	
사	₩4,055,403	2.28%		₩3,740,513	2.29%	
법	₩3,737,731	2.10%		₩3,447,791	2.11%	
음	₩2,930,494	1.65%		₩2,704,328	1.65%	
생	₩3,224,546	1.81%		₩2,976,242	1.82%	
교	₩2,758,103	1.55%	24.78%	₩2,543,005	1.56%	24.88%
총여	₩6,408,512	3.60%		₩5,914,697	3.62%	
동연	₩11,541,068	6.48%		₩10,652,359	6.52%	
안협	₩2,273,352	1.28%		₩2,098,294	1.28%	
응원	₩2,448,167	1.37%		₩2,259,647	1.38%	
소나	₩2,448,167	1.37%		₩2,259,647	1.38%	
예북	₩1,387,346	0.78%		₩1,280,515	0.78%	
풍협	₩2,098,411	1.18%		₩1,936,824	1.18%	
통T	₩1,749,034	0.98%		₩1,614,368	0.99%	
연합	₩1,387,346	0.78%	17.83%	₩1,280,515	0.78%	17.92%
총학생회	₩102,188,646	57.39%		₩93,516,565	57.20%	
I	₩71,563,000	40.19%		₩71,563,000	43.77%	

자체운영+특별공동예산

특별공동사업

QT	₩7,000,000
학생수첩	₩16,000,000
✓노수석추모제	₩11,000,000
4.19기념일	₩1,000,000
총장배체육대회	₩1,000,000
대동제	₩27,000,000
✓아한열추모제	₩6,000,000
농활	₩6,000,000
한가위귀향단	₩3,500,000
연고제	₩30,000,000
총장배체육대회	₩1,000,000
선거	₩6,000,000
졸업기념품	₩8,000,000
✓상충간부활동바	₩7,000,000
✓한총련분담금	₩12,626,000
소개	₩143,126,000

총학생회 특별 기구 심의 공고

'98년도 특별기구의 예산안을 배정하는데 앞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특별기구의 98년도 예산안과 총학생회 특별기구의 인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시간 : 1998년 2월 23일 오후 5시

2.장소 : 총학생회실

3.내용 : 특별기구 계획안 검토, 특별기구 인준 및 예산심의

4.방법 : 작년도 활동 내역과 올해 활동계획, 예산계획안
별첨 문서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

5.대상 : 작년 총학생회 특별기구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연합, 응원단, 소나기, 복합, 풍합, 연세TV, 연합)

작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이월 단체 (연기연)

기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인준받기를 원하는 단체들

① 위생원

② 특별기구 심의 주시.

총학생회 특별기구 심의에 관하여 불참시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발제시간은 작년 활동계획과 올해 활동계획을 합쳐서 10분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총학생회실 (361-3640, 3641, 3643)으로 해 주십시오.

여학생회비 40%

제35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위상 문제, 특별기구들의 심의 문제

<김신현경 또는 오늘이가 제안합니다.>

98년도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 일정은 함께 첨부된 총학생회 안에서 일정의 변동만이 약간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중운위자리에서는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다른 특별기구들과 위상을 같이 하여 중운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애기정도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다음주에 총학생회와 우리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위상 정립 및 특별기구안을 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에서 명확한 안이 애기되지 않을 경우 함께 애기를 해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빠듯하고 힘든 오티 일정 속에서도 이런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 배정도 신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축으로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총여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남들 개의치 말고 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생각들을 학생운동 진영에서 뭐라 하건 재미있게 풀어내자는 것이었지요.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끝날 총여 아니고 여성운동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전의 총여와 단절되는 지점, 여기에서 우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인상을 요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다들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대 실사를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게으름 탓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몇 단대 돌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단대 학생회들이 여성운동,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별 고민 없을 줄은 알았지만 우리가 현재의 학단위 여성운동에서 '분리주의'를 나름의 전략으로 사고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우리만 붕 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 단체 모임을 가지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저 친분이나 아는 사람 찌르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대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가 가지는 위상과 같을 수 있느냐가 문제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중운위 한 표 정도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부단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대학생회와 같은 위상 경제기구 필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총여학생회 위상 및 학내 여성운동에 관한 발제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역시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의 논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참고로 했으면 싶은 글을 첨부합니다. 두 글 모두 작년 '청년학생한마당'에서 제기된 글들이며 그 행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썩여진 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감을 잡고 다소 촉박하게나마 뭔가를 요구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함께 글을 읽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위상정립요구, 예산 백서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구두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